김세영의 우승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드라마가 숨어있다

기적 샷·역전승·연장 V '김세영표 극장 골프'



▲김세영(왼쪽)이 6일(한국시간) 레이크 머세드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LPGA투어 메디힐 챔피언십 최종라운드에서 연장 끝에 우승을 확정한 뒤 메건 캉(미국)으로부터 축하를 받고 있다. 김세영은 이정은6, 브론테 로와 맞붙은 연장 첫 홀에서 버디에 성공하며 우승컵을 안았다. 댈리시티(미 캘리포니아주) | AP뉴시스

2013·2014 KLPGA 연장 우승 드라마
2015년 LPGA 연장선 쭈타누깐 꺾어
같은 해 롯데챔피언십 극적인 이글 우승
메이어·메디힐 연장불패 빨간바지 마법

승부사 김세영(26·미래에셋)의 골프는 묘한 매력이 있다. 때로는 상상을 벗어나는 엄청난 역전승으로, 때로는 팽팽한 연장전 승리로, 때로는 골프 역사에 영원히 남을 대기록을 세우면서 항상 팬들을 만족시켰다.

2013년과 2014년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한화금융 클래식과 우리투자증권 레이디스에 챔피언십에서의 극적인 연장우승으로 자신의 이름 석 자를 각인시킨 김세영은 2014년 12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Q스쿨을 통과해 발걸음을 넓혔다.

비록 무대는 달라졌지만 연장불패와 극적인 역전우승이라는 상품성은 그대로 유지됐다. 2015년 2월 바하마 LPGA 클래식에서 유선영과 에리야 쭈타누깐을 연장에서 꺾고 첫 승을 안았다. 이어 4월 하와이에서 열린 롯데 챔피언십에선 LPGA 투어 역사상 가장 극적인 경기를 펼치며 존재감을 다시금 뽐냈다. 18번 홀(파4)에서 열린 연장전에서 박인비를 눌렀는데 8번 아이언 세컨샷이 그대로 홀로 빨려 들어가면서 우승을 자축했다. 당시 이글 장면은 지금까지도 LPGA 투어의 명경기 중 하나로 회자된다. 자타공인 '연장의 여왕'은 이후 2016년 6월 메이어 LPGA 클래식에서도 카를로타 시간다를 연장에서 꺾으며 불패 신화를 이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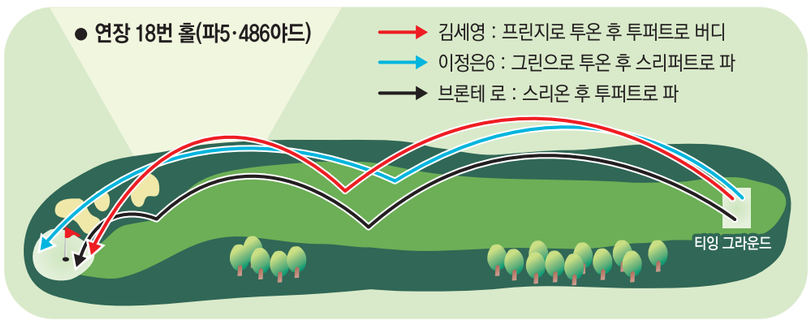
그리고 6일(한국시간) 메디힐 챔피언십에서도 김세영은 연장에서 웃으며 LPGA 통산 8승 가운데 절반을 연장승으로 장식하는 진기록을 작성했다. 물론 이번에도 우승을 향한 자신의 열망을 상징하는 빨간 바지가 최종라운드를 함께했다.



메디힐 챔피언십 최종라운드에서 연장 끝에 정상에 오른 뒤 트로피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는 김세영. 댈리시티(미 캘리포니아주) | AP뉴시스

김세영은 우승을 차지한 뒤 "오늘 최종라운드는 마치 롤러코스터 같았다. 전반 9개 홀에서 너무 못 쳤던 것이 아쉬웠는데, 마지막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다 보니 좋은 결과가 있었다. 무엇보다 명예의 전당 입성이라는 목표를 향해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은 우승이었다"고 활짝 웃은 뒤 "어차피 우승에 근접했다가 연장전을 치르게 됐으니 어떻게든 이기자는 생각밖에 없었다. 그런 부분이 연장전에서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내 골프 열정이나 우승을 향한 갈망,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무언가를 갈구하고 있다는 점이 LPGA 투어에서 5년간 계속해서 우승할 수 있는 이유가 아닐까 한다"며 꾸준한 성적을 유지하는 비결을 설명했다.

김종건 전문기자 marco@donga.com



김세영 ▲생년월일=1993년 1월 21일 ▲출신교=서울시흥초~세화여중~대원외고~고려대 ▲후원사=미래에셋 ▲프로 데뷔=2011년 KLPGA 투어 ▲우승 경력=KLPGA 투어 통산 5승, LPGA 투어 통산 8승 ▲수상 경력=2013년 KLPGA 투어 다승왕·동아스포츠대상, 2015년 LPGA 투어 신인왕

내가 왜 떴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전광판



강다니엘

●**강다니엘, 포스트잇** : 서울 지하철 2호선 삼성역에 가면 강다니엘 포스트잇 전광판이 있다? 사실이다. 이 전광판은 강다니엘의 한 팬이 자발적으로 진행한 광고다. 그런데 누군가가 자신의 마음을 담은 포스트잇을 전광판에 붙였고 이후 팬들이 자발적으로 붙인 수백 장의 포스트잇이 전광판을 색색이 수놓고 있는 것.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포스트잇 예술작품이 완성되고 있습니다!

마감에 쫓기는 작가의 얼굴(?)



기안84

●**기안84, 마감** : 웹툰작가 기안84가 차에서 고개를 삐죽 내밀고 있는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공개했다. '서른여섯번째 봄, 마감. 마감. 마감'이라는 글과 찡그린 표정에서 마감에 몰린 작가의 고뇌가 고스란히 읽힌다. 저는 이 기사로 오늘 마감 끝입니다. 기안84님, 수고하세요.

편집 | 안도영 기자 do02@donga.com



Lotto 6/45 857 회 당첨번호 (추첨일 : 2019년 5월 4일)

1등 당첨번호						2등 보너스 번호
6	10	16	28	34	38	43

1등 총 당첨금 1,191,273,753

*1등 총 당첨금은 1등에 당첨된 총 당첨게임 기준이며, 당첨 게임수가 복수인 경우 균등 배분됩니다. 총 당첨금은 총 판매액의 50% 이상입니다.

등위	당첨게임 수		당첨금(원)	당첨금 내역
1등	6개 숫자일치	15	1,284,915,425 원	총 당첨금 중 4등과 5등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75%
2등	5개 숫자일치 + 2등 보너스일치	62	51,811,106 원	총 당첨금 중 4등과 5등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2.5%
3등	5개 숫자일치	2,367	1,357,114 원	총 당첨금 중 4등과 5등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2.5%
4등	4개 숫자일치	111,971	50,000 원	50,000원
5등	3개 숫자일치	1,833,940	5,000 원	5,000원

*상기 당첨금은 1게임당 당첨금액 기준입니다. (세금 공제 전)

· 동행복권 콜센터 : 지역없이 1588-6450 · 인터넷 당첨번호 안내 : www.dhlottery.co.kr
당첨금 지급기간 : 해당 회차 지급개시일로 부터 1년까지

복권 구입시 유의사항 · 복권은 1인당 1회 10만원까지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청소년은 복권을 구매하거나 당첨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 지나친 복권 구매는 중독의 폐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동행클린센터 080-800-0501 www.clean.dhlottery.co.kr

어벤져스4, 벌써 2조5600억 원 벌었다

〈5일 현재 전 세계 수익〉

모든 기록 경신 조짐…역대 외화 흥행 1위 아바타 추월 관심

'어벤져스:엔드게임'이 국내는 물론 전 세계 영화 흥행사를 새로 쓰고 있다. 영화 한 편이 얼마나 많은 관객을 사로잡을 수 있는지, 얼마만큼 수익을 거둘 수 있는지를 시험하듯 연일 신기록 행진이다.

4월24일 국내 개봉한 '어벤져스:엔드게임'(어벤져스4)이 4일 누적 1000만 관객(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을 돌파했다. 개봉 11일 만으로, 기존 '명량'의 기록을 하루 앞당겨 최단기 1000만 관객을 수립했다. 기세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황금연휴 마지막 날인 6일 역대 외화 흥행 2위인 '어벤져스:인피니티 워'(1121만 명)를 추월했고, 다가오는 주말 역대 외화 1위인 '아바타'(1333만 명)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수익은 더욱 폭발적이다. 미국 박스오피스모조에 따르면 '어벤져스4'는 5일 전 세계 수익 21억8870만 달러(2조5600억원)를 기록, '아바타'(27억8800만 달러)에 이어 역대 2위 흥행작에 등극했다. 전 세계적으로 20억 달러 수익을 거둔 영화는 '아바타'와 '타이타닉' '스타워즈:깨어난 포스' '어벤져스:인피니티 워' 등 네 편이다. '어벤져스4'는 2주 동안 광폭 흥행을 이룬 끝에 단숨에 2위를 차지했다. 특히 중국에서 외화로는 처음으로 30억 위안(5202억3000만원)의 수익을 돌파하기도 했다.

이제 관심은 '어벤져스4'가 '아바타'를 넘어 전 세계 흥행 1위에 오를지 여부로 향한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4월 초 '어벤져스4'의 역대 1위 등극을 예측한 바 있다.

이해리 기자 gofl1024@donga.com

리그서 퇴장 당한 손흥민, UCL 챔피언 있잖아

본머스전 퇴장 리그 최종전 못뛰지만 아약스와 챔스 4강 2차전 반전 찬스

손흥민(토트넘 홋스퍼)의 2018~2019시즌은 어떻게 마무리될까.

손흥민은 4일(한국시간) 영국 본머스에서 끝난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EPL) 37라운드 본머스 원정경기에서 전반 막판 레드카드를 받고 퇴장 당했다. 본머스 제퍼슨 레르마를 거세게 밀쳐낸 것이 화근이 됐다. 경기 내내 거친 견제를 당한 손흥민은 순간 평정심을 잃어버렸다.

한국 선수가 역대 EPL에서 주심으로부터 즉시 퇴장명령을 받은 것은 손흥민이 처음. 손흥민은 리그 잔여경기는 물론이고 다음 시즌 개막전 출장도 어렵게 됐다. 영국 언론들은 '판정이 옳았다'는 반응이다. BBC스포츠와 데일리 메일, 데일리 미러 등은 "레르마의 행위와 별개로 자신을 컨트롤 못한 손흥민의 행동은 동조를 구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손흥민이 첫 퇴장을 기록한 이날 토트넘은 후반 종료직전 결승골을 내주며 0-1로 무릎을 꿇었다. 승점 1, 2점에 명암이 갈리고 있는 역대급 순위경쟁은 시즌 최종전(38라운드)까지 이어지게 됐다. 4위권 진입이 유력한 토트넘은 12일 에버턴과 격돌하지만 손흥민은 징계로 뛸 수 없다.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다. 여전히 긴 시즌을 보낼 기회가 남았다.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다. 토트넘은 4강에 올라 아약스(네덜란드)와 결승진출을 다투고 있다. 토트넘은 1일 홈 1차전에서 0-1로 패했다. 경고누적으로 뛰지 못한 손흥민은 9일 오전 4시에 열리는 원정 2차전은 정상 출격이 가능하다. 아약스는 "손흥민이 컴백하는 2차전은 1차전보다 훨씬 어려울 것"이라며 경계심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긴 시즌을 보내며 유종의 미를 거둘지, 허탈하게 시즌을 정리할지가 암스테르담 원정에 달린 셈이다. 생애 첫 UCL 결승을 바라보는 손흥민의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